

문화 단 신

HEXA 신입생 환영 연주회
수원캠퍼스 클래식 기타동아리 HEXA가 오는 10일 신입생 환영 연주회를 갖는다. 15명의 화원이 준비한 이번 공연은 '카바티나', '사랑의 찬가' 등 귀에 익숙한 음악을 중심으로 연주될 예정이다.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될 이번 공연의 공연시간은 6시 30분이다.

NAKED 정기공연
서울캠퍼스 록 그룹인 NAKED가 제 12회 봄 정기공연을 갖는다. 스래쉬메탈과 프로그레시브, 얼터너티브, 펑크 등 15명의 멤버들이 다양한 장르의 록곡연을 펼칠 예정이다. 다쉬알라의 '찰리비아온스 페어런트'와 건스 앤 로즈의 '갯 인더링', 드림 시어터의 '풀이 언더', 스킵로우의 '스윗 리를 씨스터' 등의 곡을 연주하며 오는 9일, 복지회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린다.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다.

'알렐루야' 부활절 공연
알렐루야 찬양선교단은 오는 9일 부활절을 맞아 연주회를 개최한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드보이의 '십자가의 철언'이라는 칸타타 형식의 작품을 연주한다. 음대 성악과 학생들의 모임인 '알렐루야'의 이번 공연은 앙상블 팀과 합창팀으로 나누어 독창, 중창, 남성 합창, 혼성합창을 선보인다. 지휘는 왕광열 (성악91) 군이 맡고 있으며 서창석 (무역) 교수와 김옥자 (성악) 교수가 지도한다.

대중문화 계간지 '리뷰' 재창간

대중문화 계간지 리뷰가 재창간되었다. 이 계간지는 특화된 독자층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어 오던 중 97년 겨울호를 끝으로 경제난을 이유로 발행이 중단되었었다. 재창간된 리뷰는 새롭게 다양한 문화현상과 대중문화



장르에 대한 방형제시로 재창간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재창간된 98년 봄호(통권 14호)에서는 '구멍정 없는 난파선, 한국의 대중문화 정책'을 특집으로 다양하게 꾸며져 있다. 가격은 9천원이다.

IMF와 영화산업... 그 이전에 해결돼야 할 일

OECD는 IMF가 되었고,

문민정부라는 말은 이제 초

등학생들도 쓴 웃음을 짓는

악몽이 되었다. 이제 가계

부를 적으며 문화소비를 제

일 먼저 줄여야겠다며 다짐

하는 주부의 모습이 미덕으

로 비치는 세상이다

변 영 주

(기록 영화제작소 대표)

영화산업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최고의 문화상품이라며 난리를 치던 때가 있었다. 소위 문민정부 초창기... 그러니까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극장을 지배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 영화 한편이 전세계적으로 거둬들인 수익이 현대자동차가 1년동안 수출한 자동차의 수출총액의 몇배가 된다며, 우리도 이제 거시적으로 영화산업을 육성시켜 외화벌이에 앞장서야 한다며, OECD 가입국이 되는 이때에 이제 영화도 벗기고 찌르는 동네영화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정부의 첫 번째 영화육성정책은 다름 아닌 컴퓨터 공학을 육성하겠다는 발표였다.

현재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OECD는 IMF가 되었고, 문민정부라는 말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쓴 웃음을 짓는 악몽이 되었고, 가계부를 적으며 문화소비를 제일 먼저 줄여야겠다며 다짐하는 주부의 모습이 미덕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결에 이제 공룡을 대신하여 거대한 배가 한 척 다가왔다. 순식간에 기존의 모든 할리웃 대작들을 저예산영화로 만들어버린 제임스 카메론의 '타이타닉'은 금모으기로



IMF 바다에 타이타닉을 띄우지 마라

동이 한창인 우리에게 묘한 답론을 제공해주었다.

'타이타닉'을 보면 그 뜨거웠던 금모으기운동이 말장 도루묵이 된다! 보지마라! 당산이 만약 애국자라면...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새로운 표어를 만들었다. '보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제 영화라는 단어의 총체적 의미는 영화산업이라는 말로 협의의 개념화되어 몇 년전 모두가 공룡에 미쳤던 것처럼 이제 반쪽난 배에 미쳐버리는 것이다.

'타이타닉'에 얽힌 주장들을 보며 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일본에서 정치인들이 역사를 오도하는 발언을 하면, 나라가 들썩인다. 그리고 그 엄청난 파장의 반일감정은 곧 국일이라는 말로 뒤바뀌어, 일본을 이겨야 한다며 모두들 새롭게 다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 본선의 점점 이외엔 어떤 의미도 없을 한일전에 사활을 걸고 잠실로 향한다. 이제 축구경기는 모든 식민지 역사의 진정성을 걸고 벌어지는 한판 승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다. 축구경기에 이긴다고 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일본을 이긴다고 해서 역사의 진보적인 진정성이 확보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타이타닉'을 보지 않고 달려를 유출시키지 않는 것보다 더욱 확실하고 사실적인 경제정책은 재발

의 해체와 경영정책의 혁신, 그리고 정부의 산업정책인 것이다. 제발 오늘의 경제상황을 치졸하게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라고 우기지 말라. 내가 아무리 제일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하면 뭐하나... 그돈은 모두 정치자금, 혹은 말도 안되는 재발하나를 살리기위해 쓰여지는 것을.

영화산업의 현실

영화산업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중공업에서 영화를 제작하여 타이타닉보다 더 큰 배를 만든다고 하여, 또는 타이타닉보다 더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하기 위해 국가경계의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경쟁력을 지닌 영화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객들은 단순히 공룡을 보러 극장에 간 것은 아니며, 또한 배 한척을 구경하기위해 6천원을 하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쥬라기 공원'의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를 처음 만든 것은 그가 십대였던 시절이었다. 그는 집에 있는 8mm 홈캠카메라로 영화를 찍어 자기집 차고에서 동네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영화를 상영하였다. 그는 십대에 이미 제작자요 감독이고 또한 극장주였다. 그래서 그는 어린시절부터 영화를 만들고 관객과 만나며 그 나름대로의 영화를 만드는 방법론을 배워나갔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만약 한국에서 봉천동에 사는 서필복이라는 천재소년이 십대의 나

이에 스스로 영화를 만들어 자기집 마루에서 동네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영화를 보여 주었다면? 그 소년은 아마 그 천재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쓴맛을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영화법에 따르면 그 소년은 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영화를 제작하였으며, 검열을 받지 않고 일반에게 공개하였으며, 또한 극장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적으로 영화상영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소년은 소년원에 가거나, 혹은 그 소년의 아버지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어야만 할 것이다.

벽에 갇힌 우리들

영화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나라. 그리고 자유롭게 관객과 향유할 수 없는 나라. 그런곳에서 영화는 상업적이건 예술적이건 만들어질 수 없다. 소설가에게 소설을 쓰지전 원고지와 볼펜, 혹은 컴퓨터를 사전에 신고하라고 한다면, 도대체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문학가가 존재할까?

만약 정부가 진심으로 영화산업의 육성에 한몫을 하고 싶다면, 해야할일은 영화제작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자유롭게 영화를 제작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지금은 아니다.

□ 디지털 영상 랩을 찾아

독창적인 창의력, 그것이 필요하다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산업 중의 하나인 문화산업. 국가경쟁력과 연결될 만큼 중요하다. 이처럼 문화산업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신문사는 정경대에 위치한 '디지털 영상 랩'을 찾아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디지털 영상 랩이란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교육활동이다. 작년 9월에 설립해 6개월 과정으로 디지털 영상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하나의 미디어 아트로써 커뮤니케이션과 연결해 새로운 언어를 창출하고, 다양한 장르의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제작·연구활동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프로덕션 작업을 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물이나 작품들을 가지고 대·내외적으로의



▲ 디지털 영상 랩 연구원들

활동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아직은 학교내의 교육적 공간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 위한 이론 수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접목시켜 학생이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영상 랩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궁극적인 지향점은 영상물, 교육활동, 작품 프로젝트를 가지고 새로운 뉴 미디어를 통해 그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즉, 자기능력을 개발하는 공간으로 단순한 상업적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대중들에게 다가서려고 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창조적 아이템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나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 문화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IMF와 관련해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우리 문화산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수용의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의 문화를 다시 우리것으로 만드는 대안이 필요하다. 무조건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구조의 허약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손은 되는데 머리는 안된다'라는 우리의 현실을 꼬집는 말이었다. 창의적인 사고의 문화적 마인드를 가지고 IMF를 문화산업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

(김동혁 기자)

1999년 개교50주년 행사

자원봉사자 모집

경희가족 모두, 내가 먼저!

개교50주년, 우리가 빛내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나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개교50주년(1999년)을 맞이하는 경희대학교는 역동의 시대에

대확대 대학을 만들고자 함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희앞에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향해 기쁨을 열고 경희의 미래를 그려봅시다

경희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대상	단체참여자: 동아리별 / 학과별 / 교내동문회별 / 기타 개별참여자: 재학생 및 휴학생, 동문, 학부모 등
활동내역	안내, 의전, 행사진행, 명예봉사, 홍보예술분야, 통역 등
신청안내/접수	신청서(소정양식)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본관1층) 961-0931~2 각 단과대학 교과무에 비치
신청기한	1998. 5. 30 까지
활동기간	1998. 6 ~ 1999. 5 기간 중 정기적 활동 또는 행사별 참여
비고	· 사회봉사 학점인정 예정 · 활동내용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및 기념품 지급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Tel: 961-0931~2 Fax: 961-0906

'98학년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좌안내

▶ 개강 4월 13일(단기 PROGRAM)

강좌명	기간	인원	강의시간	강의료	비고
미국인 영어회화	4. 13~6. 5 8주	15~17명	A반 08:00~09:00 B반 18:00~19:00 C반 19:00~20:00	150,000원	교재비 포함(월~목)
TOEIC L/C집중반	-	40명	17:00~18:20	90,000 원	교재비 포함(화~목)
TOEIC R/C집중반	-	40명	18:20~19:40	90,000 원	교재비 포함(화~목)
TOEFL 종합반	-	40명	18:20~19:40	90,000 원	교재비 포함(화~목)
AFKN 청취	-	40명	17:00~18:20	90,000 원	교재비 포함(화~목)
취업영어문	-	40명	17:00~18:20	80,000 원	교재비 포함(화~목)
기초일본어	-	15~17명	A반 17:00~18:00 B반 18:00~19:00	150,000원	교재비 포함(화~목)

▶ 개강 4월 6일(건강미용 특별강좌)

강좌명	내용	시간	기간	수강료
아로마 테라피 (향유건강미용법)	식물에서 추출해낸 100% 천연방향 성분인 에센셜오일을 이용한 자연 건강미용 및 치료법을 배우며 실생활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금 10:00~12:00	12주	150,000원
발반사건강법	제2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발의 지압 및 마사지법을 배워 질병의 자유와 예방,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금 14:00~16:00		

취 미 교 양 과 목	강좌명		시 간	기 간	수 강 료	국 교 재 비 포 함	강좌명		기 간	수 강 료	
	구기	논술교실	화 18:00~20:00	12주	120,000원		영어회화	직강인반	180,000원 (교재비포함)		
		어린이 영어교실	수~목 15:00~16:00		300,000원			TOEIC			
		생활영어	화 11:00~12:30 12:30~13:30		120,000원			15:00~16:00			
		도예교실	화·목 18:00~19:30		200,000원			(월~목 10주)			
스 포츠 교 양 과 목 <td rowspan="2">무도</td> <td>테니스</td> <td rowspan="2">월~목 생략반</td> <td rowspan="2">06:00~07:30</td> <td rowspan="5">12주</td> <td rowspan="5">150,000원</td> <td rowspan="5">한국어 특별과정</td> <td rowspan="5">월·수·금 13:00~14:00 (12주)</td> <td rowspan="5">240,000원 (한국문화 특강료 및 교재비 포함)</td>	무도	테니스	월~목 생략반	06:00~07:30	12주	150,000원	한국어 특별과정	월·수·금 13:00~14:00 (12주)	240,000원 (한국문화 특강료 및 교재비 포함)		
		배드민턴									
	무용	골프	지역반	18:00~19:30						호신술	
		태권도									에어로빅
		유도									
건강	스포츠댄스	월~목 18:00~19:30	웨이트트레이닝								
	호신술			하트니스트레이닝							
	에어로빅				게이트볼						

문의/접수: 수원캠퍼스 평생교육원(체육과학대학관 내 112호) ☎ 0331) 201-2155~7

경희광고대전

1. 응모자격

- 경희대학교 및 동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부모
- 경희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동문
- 경희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 및 직원

2. 응모요령

- 응모부문: 신문광고
- 응모과제: '99학년도 본교 입시광고(입시요강의 배경이미지 및 캠퍼스 사진 등)
- 입시요강은: '97년 12월 11일자 한국일보, 12월 12일자 중앙일보, 12월 15일자 조선·경향·서울신문, 12월 16일자 동아일보의 본교 입시 광고를 참조하여 반드시 작품에 함께 삽입되어야 함
- 제출요령: 5단×37cm. 컬러 또는 흑백인화지 제출
- 응모작은 작품뒷면에 작품보다 사방 2센티씩 큰 흑백 우드라 또는 하드보드지를 반드시 부착하여 제출해야 함
- 응모작과 함께 A4용지에 입상시 통지를 위한 제작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관계사항을 상세히 기입하고, 이와 별도로 작품내용에 관한 제작의도를 기재한 후 응모작과 함께 제출
- 제출마감: 1998년 7월 31일 오후 5시(단, 우송시에는 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실
- 제출방법: 직접 또는 등기우송

3. 시상내역

- 대상 1편: 상패 및 상금 1백5십만원
- 우수작 1편: 상패 및 상금 1백만원

4. 발표

- 1998년 8월 31일까지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
- 대학주보에 입상작 발표

5. 기타

- 문의처: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실(전화: 02-961-0023~6)
- 응모작품수는 제한 없으며, 공동작품도 가능
- 응모작에 대한 판권은 경희대학교에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 표절작품은 수당할 수 없으며, 수상하였더라도 사후에 표절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상을 취소함

대외협력실